

대통령 당선인 전북공약, 새정부 국정과제로

도, 전북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 개최... 수용성 제고 위해 사업 구체화 인수위·중앙부처 대상 소통채널 확보 주력... 공약반영 공감대 형성

전북도가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전북공약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인 전북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를 17일 개최, 발 빠른 대응에 돌입했다.

이날 보고회는 송하진 지사 주재로 행정·정무 부지사와 실·국장, 전북연구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 공약 총괄 보고, ▲과제별 공약 이행·대응계획,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전북공약의 정부정책과 연계성 및 이행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연계·신규사업 등을 논의했고, 정책추진단 운영, 중점사업 구체화, 공약 반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실행력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이 제

시됐다.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전북도 7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 특화 클러스터 조성, ▲동서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메타버스 기반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대권도시화사업, ▲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지리산과 무진장(무주·진안·장수)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사업 등으로 이뤄졌다.

도는 출범별 인수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에 건의, 지역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만큼, 지역공약과 연계해 인수위원회에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 강소권 메가시티 조성, 재생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두고 전북 지역공약과 현안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도정역량을 집중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하면서 "인수위, 각 부처 등과 긴밀한 소통 채널 확보에 주력하고, 전북 공약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지역주민 주도로 상류지역 오염원 중점관리 추진

용담댐 등 4개 '광역상수원 지킴이' 116명 채용... 금지·불법행위 감시·계도·쓰레기 수거·행락철 홍보활동 추진

전북도가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상류지역의 오염원 사전 차단 및 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점관리 대상은 용담댐, 옥정호, 동화댐, 부안댐 등 4개 광역상수원이다. 우선, 지역주민 116명을 채용해 유입하천 등의 오염원을 사전 차단하고, 감시·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상수원내 불법어로, 새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 금지행위와 오염원이 상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상시감시 체

계를 강화하는 한편,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및 비점오염 적정관리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한, 광역상수원을 중심으로 한 행락객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행락객이 많은 5월부터 10월, 약 6개월 동안은 쓰레기 수거 활동과 행락객을 대상으로 '쓰레기 퇴거가 기' 등 홍보·계도 활동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상수원 지킴이'는 광역상수원이 위치하고 있는 6개시.군에서 3월부

터 채용을 시작해 4월에는 감시요령 등을 습득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2,876건의 감시·계도 활동과 더불어, 194톤의 쓰레기 수거 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

이와함께, 도는 상수원과 유입 하천에 오염물질 유입 여부 등을 신속히 파악해 조치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수질변동 모니터링을 병행 추진한다.

현재까지 4개 광역상수원에 대한 수질은 총유기탄소를(TOC) 기준으로

하는 상수원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하는 유입하천 모두 1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오염원 차단과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홍ongi 도 물환경관리과장은 "도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상수원에 대한 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개발청, 국내 대표 친환경 자동차 전시회 참가

국내 최초 알이백(RE100) 산단·미래차 집적화 단지에 투자 요청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xEV 트렌드 코리아 2022'에 참가해 전기차, 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주최로 열리는 이 행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 전시회로, 국내외의 150여개 관련 기업이 참가해 전기자동차를 주제로 국제적 동향과 신차 정보 등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올해 열리는 행사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정책과 작년 발표된 2022년

무공해차 50만대 누적보급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기관과 관련 기업들의 소통의 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체계적인 기업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라면서 "새만금은 국내 최초로 RE100이 실현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그린 국가산단'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 스마트그린 국가산단과 RE100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새만금 미래차 협력지구(클러스



터) 내 탄소중립을 앞당길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은 현재 새만금 미래차 협력지구로 전기차, 전장부품 기업들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원인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이들 기업 간의 상승시

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 홍보관을 설치해 새만금의 친환경 미래차 협력지구 조성 계획을 비롯한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신규생업 일자리사업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사 전에 미리 접촉한 기업들 중에서 새만금 투자에 관심을 표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맞춤형 투자상담도 진행한다.

더불어, 새만금에 입주해 있는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자체생산 제품 전시 등을 통한 자회사 홍보와 함께, 새만금에서의 기업 운영상황 등을 소개함으로써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핵심은 '속도'"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의 핵심은 '속도'라며 이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것은 오히려 개발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해 10여 년간 표류하다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딛고 절차대로 진행되는 사업을 지금에 와서 선거 국면을 위해 혼드는 것은 전주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자 과거로 회귀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전주종합경기장은 현재 '시민의 숲 1983' 프로젝트에 따라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대체시설사업 등 크게 3가지로 추진, 이중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정원의 숲이 가장 먼저 첫 삽을 뜬다.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전라북도체육센터와 호텔을 짓는 마이스의 숲 조성사업 역시 지난 4일 행안부 '2022년도 제1차 지방재정 중앙부처심사'의 분과 심의와 본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는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의를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을 다시 원점에

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뜻으로, 이는 전주 발전을 생각한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조 전 경진위원장은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거처온 행정 절차를 수포로 돌리는 일로, 또다시 이 절차를 밟으면 전주종합경기장은 지금까지 표류한 시간 만큼 제자리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그 어느 사업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명확히 하며, 앞으로도 전주의 새로운 비전·방향으로 제시한 1,000만 경제 플랫폼 도시를 위해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속도를 최우선으로 해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속도다"며 "현재 개발하겠다는 것을 방해하는 건 선거 프레임"이라며 "개발 추진 속도를 높여나가는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정부예산 확보 올인할 것"

우범기 전 정무부지사

슬로우 시티 폐지 등 3대 핵심공약 발표

우범기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전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예산해폭단, 예산해결사 가치를 내걸고 전주를 새롭게 혁신할 것을 약속했다.

우 출마예정자는 17일 전주시장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대변혁을 이끌 3대 핵심정책을 발표했다.

우 출마예정자는 "지금이 전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대규모 정책 사업을 발굴해 전주를 전북의 대표도시, 슬로우시티가 아닌 '전주·완주 통합'이 가능한 메가시티로 변화시키겠다"며 확실한 정부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3대 핵심공약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출마예정자가 이날 밝힌 3대 정책은 ▲슬로우 시티 폐지 ▲KTX 천전선 신설 ▲대안방직 부지의 랜드마크 개발 등이다.

우선 그는 슬로우 시티를 폐지하고 한우마을을 전면 재개발, 새로운 형태

의 복합관광지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밝혔다. 세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슬로우 시티를 과감하게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주~세종 30분 생활권 실현을 위해 KTX 단거리 노선인 KTX 천전선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KTX 천전선이 신설되면 서울과 호남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전라도 동부지역에 관광객 유입, 기업유치 등 산업성장의 미증후 역할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 예비후보는 200층 타워를 올려 호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고 대안방직 부지 개발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대안방직 부지의 경우, 민간이 개발했다는데 행정적 이득을 막아야 할 이유는 없다"며 "건축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안방직 부지와 종합경기장은 종합적 시각으로 개발해야 한다면서 "50% 이상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도심 중앙공원을 조성하고 200층 이상의 초고층 타워를 건설, 호남의 랜드마크로 키워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주를 세계적 관광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 체육 이끌어 갈 인재육성 나서

전북체육진흥기금사업 활용... 선수 발굴 등 10개 사업 선정·지원

전북도가 체육진흥기금사업을 활용, 체육꿈나무육성사업을 지원해 미래 전북체육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나선다.

도는 '2022년도 전북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전북체육 꿈나무 선수 등 10개 사업(150백만 원)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 공모에 접수한 13개(254백만 원)신청사업 중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등을 고려해 지원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체육진흥기금사업과정을 통해 우수선수 발굴에 어려움 겪는 전북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 전년도에 지원한 12개 사업 중 홍보, 참여인원, 선수등록 및 대회출전 등 사업성과가 우수한 8개 사업은 단별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사업은 사업의 계획성 및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중점기준

으로 5개 사업 중 2개 사업을 선정했다.

'전북체육진흥기금사업'은 100억 원의 이자수입을 활용해 꿈나무 우수선수를 발굴해 엘리트 체육 경쟁력 강화 및 전북체육 위상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도부터 전북도 회원단체(7단체) 중 전국체전 종목(47단체) 및 동계체전 종목(5단체)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2021년도에 지원한 추진 성과는 12개 사업, 237명의 꿈나무 선수지원, 우수선수 발굴에 10종목 중 107명이 선수등록을 함에 따라, 체육인재 발굴 및 양성에 기여했다.

유동욱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 지방체육진흥사업을 비롯한 우수선수발굴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등 지원체계를 수립해 전북체육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펼친다

농업·관광·수질·경제 등 파급효과 높은 빅데이터 분석 착수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수행·지능형 공공서비스 제공

전북도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농업·관광·수계 관리·경제 등 파급효과 높은 빅데이터 분석 착수, 지역화해 소비분석 등 4개 과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사업 착수 보고회를 17일 가졌다.

이날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빅데이터 전문가, 담당 공무원, 사업 수행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빅데이터 분석사업 수행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

농업·관광·수계 관리·경제 등 파급효과 높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농업·관광·수계 관리·경제 등 파급효과 높은 빅데이터 분석 착수, 지역화해 소비분석 등 4개 과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사업 착수 보고회를 17일 가졌다.

이날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빅데이터 전문가, 담당 공무원, 사업 수행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빅데이터 분석사업 수행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

농업·관광·수계 관리·경제 등 파급효과 높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농업·관광·수계 관리·경제 등 파급효과 높은 빅데이터 분석 착수, 지역화해 소비분석 등 4개 과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사업 착수 보고회를 17일 가졌다.

전북도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농업·관광·수계 관리·경제 등 파급효과 높은 빅데이터 분석 착수, 지역화해 소비분석 등 4개 과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사업 착수 보고회를 17일 가졌다.

이날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빅데이터 전문가, 담당 공무원, 사업 수행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빅데이터 분석사업 수행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

농업·관광·수계 관리·경제 등 파급효과 높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농업·관광·수계 관리·경제 등 파급효과 높은 빅데이터 분석 착수, 지역화해 소비분석 등 4개 과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사업 착수 보고회를 17일 가졌다.

이날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빅데이터 전문가, 담당 공무원, 사업 수행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빅데이터 분석사업 수행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

농업·관광·수계 관리·경제 등 파급효과 높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농업·관광·수계 관리·경제 등 파급효과 높은 빅데이터 분석 착수, 지역화해 소비분석 등 4개 과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사업 착수 보고회를 17일 가졌다.

"안전하고 행복한 청소년 복지 실현"

유창희 전 도의회 부의장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청소년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전 부의장은 17일 전주의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는 오늘을 살아가는 지역의 청소년에게서부터 시작한다며, 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가치와 잠재력을 지녔다며 전주에 맞는 청소년 복지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 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위기전화

제도 마련과 기술청소년이나 학대받은 청소년을 위한 자립생활 원터 등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복지시설에는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자원활동가와 사회복지사들을 확대 증원에 전문복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심형 교육공간'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배움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아이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외면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만들고 공간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대학 4학년생에 취업지원금 지급"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전주시장 출마 예정인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한파로 채용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청년들이 취업하기도 힘들고, 비대면·비접촉 문화가 성행하면서 아르바이트 일자리 구하기까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주시 내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활동에 필요한 취업지원금이 절실하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행정관은 "청년들이 취업준비 스트레스 극복과 양질의 취업 정보를 얻는 등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상 전주시에서 3년 이상 거주

하고 있는 4학년 대학생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취업지원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내 향토기업과 연계해 학비와 학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도 좋은 상생 방안"이라며 "각계의 부름도 경감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청년들의 경쟁력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시 청년들의 경쟁력과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 전주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전주시 내 취업준비 청년들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 할 때"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